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 장 서창대 042-481-5182 사무관 장성국 042-481-5999 주무관 임진혁 042-481-5964
	2019년 12월 16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15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뿌리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년부터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우선 선정, 지식재산권(IP) 보호진단, IP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뿌리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IP분쟁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09년부터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중인 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 경고장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내년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이 요청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의 업종별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심화 컨설팅 전에 기업의 IP보호 진단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또한, 매년 주기적으로 지재권 인식 제고 및 IP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다.

- 특허청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재권 교육 및 진단을 위한 기업 수요 발굴, 홍보 등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 대다수가 여전히 해외 특허 출원에 소극적이고 지재권 전담 조직·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지재권 보호에 취약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 “이번 뿌리산업에 대한 IP보호 강화 조치가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특허청에서는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IP보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보호원 (분쟁예방팀 T.02-2183-5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 붙임 : 뿌리산업 개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주무관 임진혁(☎ 042-481-59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뿌리산업 개요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6대 업종

*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內在)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根幹)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命名

제품의 형상제조 공정				특수기능 부여공정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제조산업 기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

- 뿌리기술은 자동차·조선·IT 제조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어 최종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주력제조업 품질경쟁력의 핵심

* ('15년 J.D. Power 조사) 현대·기아차의 초기품질(구매 후 90일內)은 전체 제조사 중 2위(기아), 4위(현대)로 최고 수준이나, 3년 경과 후 평균이하인 21위, 26위로 하락

- 공정산업의 특성상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되어 개도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선진국의 숙련기술 영역

* 독일 등 선진국은 수요산업에 대응하는 뿌리기술을 첨단장비로 구현, 뿌리산업 선도

- (신산업 필수기술)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로봇, 바이오, 드론, 친환경차, OLED, 반도체 등 신산업에도 필수 기술

< 뿌리기술의 적용 : (차세대 전기차) >



< 뿌리기술의 적용 : (지능형 로봇) >

